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옴

(금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4

버가모에 있는 교회

성경: 계 2:12-17

I. 헬라어로 버가모는 연합을 암시하는 ‘결혼’과 ‘견고한 탑’을 의미한다 — 계 2:12.

- A. 버가모 교회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세상과 결혼하여 연합되어서 높고 견고한 탑이 된 교회를 예시한다. 이 두 가지 의미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 중 두 가지, 곧 큰 나무의 비유(31-32절)와 누룩의 비유(33절)에 부합된다.
1. 큰 나무는 높은 탑과 일치하며, 누룩을 가진 여자는 세상과 결혼한 변절한 교회와 일치한다.
 2.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한 기독교계는 세상적이고 귀신적이며 이교도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그리스도께 속한 좋은 것들과 혼합시켜 가증스러운 혼합물을 만들어 낸 악한 여자이다 — 마 13:33, 계 17:1-6.
 3. 우리는 반드시 이 악한 체계에서 완전히 나와 하나님께 분별되어,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적인 것들이나 우상숭배나 사탄의 침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금등잔대가 될 수 있다 — 계 1:12.
 4. 우리가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는 중이라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노선에 있으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에서 빛나가지 않았다는 강한 표시이기 때문이다 — 비교 히 6:19, 13:13.
 5. 여러 해에 걸쳐 계속해서 우리는 박해를 받음으로써 보존되었다. 우리가 사탄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사탄은 우리가 좋은 평판을 얻도록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좋은 평판을 받아 본 적이 없다.
 6. “우리 가운데의 역사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기독교에서 완전히 나오는 역사였다. 우리 가운데 소위 어떤 동역자들이 최선을 다해 타협하려고 한 것은 수치이다. 그들은 교파들과 지방 교회들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말하며, 그들 자신을 이 간격을 잇는 다리라고 여긴다. 이것은 니 형제님에게 고통이었으며, 오늘날 나에게도 고통이다.”(교회의 역사와 지방 교회들, 134쪽)
- B. 요한계시록 2장 13절 상반절에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나는 네가 거하는 곳을 안다. 그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사탄의 권좌는 세상에 있고, 그곳은 바로 사탄이 거하고 있는 곳이며, 그가 지배하는 영역이다. 세상적인 교회는 세상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거하는 곳에 거한다.
- C. 사탄이 거하는 곳에 거하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왕인 사탄은 아무것도(그 어떤 일에서도 아무런 근거나 기회나 소망이나 가능성도) 갖지 못한다 — 시 91:1, 딤후 4:22, 요 14:30.
- D. 교회는 순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배필이기 때문에(고후 11:2), 이러한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인 간음으로 간주된다.

1. 사탄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간교한 자인 사탄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에서 전략을 바꾸어 교회를 환영하였다. 로마 제국이 이렇게 교회를 환영한 것이 교회를 망쳐 놓았는데, 그것은 이러한 환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2. 세상적인 것들은 우상숭배와 관련되는데,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은 언제나 우상숭배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우리의 생활에서 주님을 대치하는 것을 우리 속에 갖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다 — 겔 14:3, 요일 5:21.
 3. 마몬 또한 하나님과 대립되는 위치에 서 있다.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는 것은 단지 마몬 때문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 마 6:24.
 4. 교회는 반드시 금등잔대, 곧 삼일 하나님의 순수한 표현이어야 하며, 세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교회를 세상적인 종교로 만든 후에, 교회는 완전히 불결하고 세상적이 되었으며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 E. 버가모에 보낸 서신에서 주님은 ‘안디바’를 언급하시면서,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하던 때에도”라고 말씀하셨다 — 계 2:13하.
1. 이 신실한 증인은 세상적인 교회가 끌어들여서 실행했던 모든 것에 대항하였다. 이것 때문에 그는 주님의 순교자가 되었다. 세상적인 교회에 반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순교의 영이 필요하다.
 - a. 증인은 순교자, 곧 생활 속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 있는 증거를 지닌 이이다 — 행 1:8.
 - b. 우리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주님을 위한 순교자들이 될 수 있다 — 딤후 4:6, 계 12:11, 마 10:36, 비교 고전 16:12.
 2. 헬라어로 ‘순교자’는 ‘증인’이라는 단어와 동일하다. 안디바는 신실한 증인으로서 반대 증거, 즉 예수님의 증거에서 빛나간 모든 것에 반대하는 증거를 지니고 있었다.
 3. 안디바가 살던 시대에 버가모 교회가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은 것은 바로 안디바의 반대 증거로 말미암은 것임이 틀림없다 — 계 2:13.

II. 세상적이고 타락한 교회는 발람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니콜라당의 가르침을 지킨다 — 계 2:14-15.

- A. 발람은 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이방인 신언자였다. 세상적인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민 25:1-3, 31:16). 우상숭배 뒤에는 언제나 음행이 뒤따른다(행 15:29). 세상적인 교회가 주님의 이름, 곧 주님의 인격을 소홀히 여길 때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음행이었다.
- B. 발람의 그릇된 길은 그릇된 교리가 진리와 반대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샬을 위하여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어떤 은사의 영향력을 남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그들이 주님을 순수하게 경배하는 데에서 벗어나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탐심이 있는 사람들은 샬을 탐내기 때문에 발람의 그릇된 길로 무모하게 돌진하게 된다 — 민 22:7, 21, 31:16, 계 2:14, 비교 왕하 5:20-27.
- C. 발람의 가르침은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떠나게 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하며, 그

리스도를 누리는 일에서 빗나가게 하여 영적인 음행에 빠지게 한다. 반면에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믿는 이들의 기능을 파괴한다. 앞의 가르침은 머리를 소홀히 여기게 하고, 뒤의 가르침은 몸을 파괴한다. 이것은 모든 종교적인 가르침 안에 있는 원수의 간교한 의도이다.

D. 먼저, 니골라당은 초기 교회에서 성직자 계급 제도를 실행했고, 다음으로 타락한 교회 안에서 그것을 가르쳤다. 오늘날 천주교와 개신교에서는 이 니골라당의 성직자 계급 제도를 널리 실행하며 가르치고 있다.

III.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 — 계 2:17.

A.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 안으로 합병되기 위해 감추어진 만나를 먹어야 한다 — 출 16:33-34, 요 14:20, 계 21:2-3.

1. 금항아리 안에 보존된 만나가 구약의 하나님의 거처였던 장막의 중심이었듯이,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동화시킨 그리스도께서 교회, 곧 오늘날 하나님의 거처의 일부인 우리 존재의 중심이시다 — 히 9:3-4, 딤후 4:22, 엡 2:22.
2.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는 장막의 중심이시다. 감추어진 만나는 금항아리 안에 있고, 금항아리는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입혀 만든 껍데 안에 있으며, 이 껍데는 지성소 안에 있다.
3. 감추어진 만나이신 아들 그리스도는 금항아리이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껍데이신 아들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지성소의 실재인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사신다.
4.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는 아들 안에 있으며, 아들은 우리 안에 계시고, 실재의 영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것이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의 합병이다 — 요 14:16-20.
5. 장막 안으로 합병되는 길은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우주적인 합병체인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궁극적인 장막 안으로 더욱 더 합병된다 — 요 6:57, 마 4:4.
6.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어서는 안 되며,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새 예루살렘 안으로 합병되어야 한다.

B.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변화를 산출한다.

1. 주님은 이기는 이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하고 흰 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감추어진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흰 돌로 변화될 것임을 가리킨다.
2. 이 돌들은 흰색이 가리키듯이 주님께 의롭다 함을 받고 입증될 것이지만, 세상적인 교회는 주님께 유죄 판결받고 거절될 것이다.
3. 하나님의 건축물인 교회의 건축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에 달렸으며,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에서 비롯된다.

C. 변화된 각각의 믿는 이들은 흰 돌들로서,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을 지니고 있다.

1. 그러한 새 이름은 변화된 사람의 체험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 자신만 그 이름의 의미를 안다.

2. 요한계시록 2장 17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취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기록한 전기(傳記)로 취해야 한다.
 - a.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약속에 동의합니다. 이제부터 계속해서 저는 감추어진 방식으로 당신을 먹을 것이고, 변화를 받아 당신의 건축물을 위한 돌이 될 것입니다.”
 - b.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그렇다! 교회가 세상적이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흰 돌들이 될 수 있다고 약속하셨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세상과 결혼한 교회

첫 번째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여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하라고 충고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충고가 받아들여졌음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했고, 박해를 받았으며, 고난받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역사의 사실에 의하면 로마 제국이 교회를 손상시키려고 진력했을 때 교회는 수많은 고난을 받았다. 마침내 원수 사탄은 박해가 그렇게 효과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간교한 자인 사탄은 그의 전략을 교회를 박해하는 것에서 환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4세기 초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받아들여 국교로 만들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계속 일종의 로마 국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이 교회를 환영한 것이 교회를 해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나왔으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되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교회를 환영함으로써 교회는 세상으로 되돌아갔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지어 세상과 결혼했다. 하나님은 이런 유형의 세상적인 연합을 영적인 간음으로 여기신다.

이런 결혼 때문에 교회는 순수성을 잃고 세상적이 되었다. 교회가 세상과의 연합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세상적인 것들은 우상숭배와 관계있는데, 이는 세상적인 것은 언제나 우상숭배와 결합되기 때문이다. 버가모 교회는 먼저 세상적이 되었고 그런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사탄은 세상과 우상들로 교회를 적셨다. 그 결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하나님은 세상 밖에 있고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는 교회를 갈망하신다. 교회는 반드시 금등잔대, 곧 삼일 하나님의 순수한 표현이어야 하고 또 세상과는 아무 관련도 없어야 한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교회를 세상적인 종교로 만든 이후로 교회는 완전히 더럽고 세상적이며 우상숭배하는 곳이 되었다.

사탄이 거하는 곳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 “나는 네가 거하는 곳을 안다. 그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셨다. 사탄의 거처는 세상이다. 교회가 세상과의 연합 안으로 들어갔고 계속해서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사탄이 거하는 곳인 세상 안에 거한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또한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거한다. 이것 역시 세상을 언급한다. 세상은 사탄의 거처일 뿐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제 교회는 세상과 하나일 뿐 아니라 심지어 사탄과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너무 끔찍하다! 오늘날 세상적인 기독교는 여전히 세상과의 연합 안에 있으며, 여전히 사탄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이론들과 실행들로 침투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의 심각성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원수 사탄은 간교하다. 그가 환영하는 것은 박해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사탄은 먼저 박해를 일으키고, 그다음 이것이 실패하면 그의 책략을 바꾸어서 우리를 환영한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과거에 본 적이 있다. 먼저 종교는 우리를 박해한다. 그런 다음 전략을 바꾸어 우리를 종교와의 타협 속으로 유혹하려고 애쓴다. 이것이 사탄의 교활함이다. 만일 우리가 그것에 의해 울무에 걸린다면, 우리는 결국 세상적이 되어 사탄과 연합할 뿐 아니라 그와 하나 되기까지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이른바 기독교의 참상황을 보고, 또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일곱 서신을 요한계시록에 포함시키셨다. 교회는 세상 밖의 순수한 금등잔대여야 한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하며, 사탄의 악하고 간교한 침투에 일보도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항상 이것에 대항하여 서 있어야 한다.

버가모라는 단어의 두 가지 의미인 '결혼'과 '견고한 탑'은 마태복음에 있는 두 비유인 큰 나무의 비유(마 13:31-32)와 누룩의 비유(마 13:33)와 부합된다. 큰 나무의 비유에서는 아주 작은 겨자씨가 한 그루의 나무가 되었다. 이것은 의심할 것 없이 거대한 기독교를 상징한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확실히 커다란 나무가 되었기 때문이다. 누룩의 비유에서 우리는 고운 가루 서 말 속에 누룩을 넣는 한 여자를 본다. 누룩은 온갖 죄 있고 세상적이며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상징한다. 이 모든 사악한 것들이 고운 가루 속에 넣어졌다. 성경에서 고운 가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소제에서 사용된다. 큰 나무는 높은 탑과 일치되며 누룩을 가진 여자는 세상과 결혼한 변절한 교회와 일치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성경적 의미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분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독교는 소름 끼치는 혼합물을 산출하려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사탄적이고 악마적인 것들을 그리스도에 속한 좋은 것들에 혼합시키는 큰 음녀 곧 악한 여자이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큰 나무를 포기하고, 이 견고한 탑에서 빠져 나오며, 이 악한 제도 밖으로 나와 하나님께로 분별되어서, 그분의 원래의 의도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분의 의도는 바로 교회가 세상적인 것이나 우상숭배나 사탄의 침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순수한 금등잔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탄이 거하는 곳, 즉 사탄이 그의 권좌에 앉아 있는 곳에 있지 않다. 우리는 그곳에 있지 않다. 교회 안에는 사탄을 위한 여지가 없다. 여기에는 사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처음 세 서신에서 우리는 세 교회들, 곧 바람직한 교회, 박해받는 교회, 세상적인 교회를 본다. 우리는 물론 바람직한 교회와 박해받는 교회이기를 원해야 하지만, 세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것도 거부해야 한다. 조심하라! 원수가 당신을 박해한 다음에는 그의 전략을 바꿀 것이다. 박해 대신에 환영이 있을 것이다. 이런 환영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 오히려 당신은 전갈에게 쏘이는 것보다 환영받는 것을 더 무서워해야 한다. 박해와 반대와 공격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따뜻한 환영의 손길을 내밀 때 그것이 가장 위험한 때이다. 당신이 공격당하고 박해를 겪고 있을 때 용기를 잃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궤도 위에 있고 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데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강한 표시이다. 그러나 따뜻한 환영은 주의하라. 따뜻한 환영을 받는 것보다 박해를 당하는 편이 훨씬 낫다.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는 우리가 어떤 길이나 어떤 점이나 어떤 면에서도 세상과 연합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 준다. 우리는 세상과 전혀 상관이 없어야 한다. 지난 오십여 년 동안 따뜻한 환영의 손길이 우리에게 여러 번 내밀어졌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매번 거절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 결과 우리는 여러 해에 걸쳐서 박해받음으로써 보존되어 왔다. 우리는 결코 좋은 명성을 얻어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만일 당신이 사탄과의 연합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에게 좋은 명성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가 끊임없이 전쟁에 참여하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쟁은 내내 벌어지고 있다. 주님의 회복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일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 이 증거는 곧 전쟁이다.

안디바의 간증

이 증거는 안디바에게 있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주님은 “너는 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심지어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하던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다. 헬라이어에서 안디바란 이름은 ‘모든 것을 반대함’을 뜻한다. 주님의 이 신실한 증인은 세상적인 교회가 끌어들이고 실행했던 모든 것을 반대하여 섰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의 순교자가 되었다. 헬리어로 ‘순교자’라는 말은 ‘증인’과 같은 단어이다. 반대 증인인 안디바는 예수님의 증거에서 벗어난 어느 것에도 반대하는 반대 증거를 지녔다. 그의 생존 시에 버가모 교회가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은 이 반대 증거로 말미암은 것임에 틀림없다. 안디바는 세상적인 교회에 반대하여 싸우는 데 앞장섰으며 오늘날 우리가 세상적인 교회를 반대하여 싸울 수 있는 길을 개척했다. 세상적인 교회가 어떠한든,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행하든, 안디바는 그것에 반대하여 싸웠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음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주님은 “너는 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며 그 인격은 그 이름의 실재이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 곧 그분의 인격의 실재를 여전히 굳게 붙잡고 있었다. 세상적인 교회의 빛나가는 경향은 주님의 인격의 실재를 포기하려고 한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데, 이것은 교회가 주님의 이름 곧 주님의 인격의 실재를 영원토록 굳게 붙들기 위함이다.

주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음

또한 주님은 “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분의 인격과 일에 속한 모든 것을 나타낸다. 그것은 우리 속에서 믿는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을 가리키는 객관적인 믿음이다. 교회가 세상과의 연합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죽기까지 신실함

안디바는 그의 반대 증거에 있어서 신실했으며, 심지어 죽기까지 그러했다. 안디바는 교회가 세상적인 것에 반대하는 그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하여 순교자가 되었다. 세상적인 교회에 반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는 순교의 영이 필요하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적인 것을 반대함으로써 죽기까지 주님의 증거에 신실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12장, 152-156쪽)

감추어진 만나는 하나님의 뜻임

감추어진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고 누리는 것이 교회생활 안의 온갖 하락을 이기는 길임

교회생활 안에서 온갖 하락을 이기는 길은 내적인 생명과 생명 공급을 위해 감추어진 만나, 개인적인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고 누리는 것이다. 언약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을 위한 특별한 뜻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하락한 교회의 세상적인 것들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과 빛나가게 하는 것들을 떠나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개인적인 시간에서 감추어진 방식으로 주님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개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지만, 여전히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 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서 분별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거룩한 말씀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개인적인 장소에 있을 필요가 있다. 많은 믿는 이들이 공개된 그리스도만을 누릴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개인적인,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만 집회에서 공개된 방식으로만 그리스도를 체험해서는 안 되며, 지성소 안에서 감추어진 방식으로, 심지어 언약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그분을 체험해야 한다.

오늘날 언약케이스인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시며, 우리의 영은 지성소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는 지성소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서 우리는 언약케이스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금항아리 곧 신성한 본성을 갖는다. 오늘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은 우리의 영 안에 있다. 비록 우리에게 금항아리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자주 우리의 영으로부터 빛나간다는 것이다. 영으로부터 나오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거나 다툴 필요가 없다. 형제들과 농담만 해도 우리는 영 밖에 있게 된다. 또한 종교적인 것은 영 안에 있는 것과 크게 다르다. 종교적일 때 우리는 광야로 이끌리게 된다. 금항아리는 언약케 안에 있고, 언약케는 지성소 안에 있으며, 지성소는 우리의 영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접촉한다면, 우리는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것이다. 공개된 만나는 하나님의 거처 밖에 있으며, 광야에서 헤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었다. 반면에 감추어진 만나는 하나님의 거처의 가장 깊은 곳에 머물며 더 이상 혼 안에서 방황하지 않고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을 위해 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섬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있다면, 우리는 공개된 만나는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추어진 만나는 먹을 수 없다. 우리가 감추어진 만나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 한다. 지성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를 누리는데, 그분의 임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결코 맛볼 수 없다. 구약의 성막 주변의 봉사를 생각해 보라. 레위인들은 바깥뜰에서 섬겼고, 제사장들은 바깥뜰과 성소에서 섬겼다. 성소에서 제사장들은 임재의 떡을 진설하고, 등잔을 정돈하며, 향을 피웠다. 그러나 대체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할 일이 거의 없었다. 바로 지성소에서 대체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직접 하나님을 섬겼다. 바로 지성소에서 섬기는 사람은 감추어진 만나를 누린다. 감추어진 만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하는 것이 더 적어진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봉사를 드린다. 결국 지성소 안에 있는 신성한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봉사가 멈춘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만을 갖고, 감추어진 그리스도, 감추어진 만나를 누린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갖고 그분의 마음과 의도를 알게 된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의도를, 그분께서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임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그분의 마음과 의도를 이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때 그분의 위임이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임을 갖는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 밖에 사는 사람들은 감추어진 만나를 누릴 수 없다.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사람들만이 감추어진 만나를 누릴 수 있다. 주님 편에 서서 그분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들은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 공급으로 얻을 것이지만, 그 공급의 맛은 감추어진 만나일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그 맛을 모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이기는 이들이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를 만지거나 맛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명예나 지위를 추구한다면, 이기는 이들의 누림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감추어진 만나를 맛보거나 만지거나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적인 명예를 갈망하고 세상과 결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할 때 어떤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나 가깝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신성한 본성을 접촉하고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면서, 세상과 모든 상황과 우리의 자아와 심지어 우리의 타고난 존재까지도 초월하게 된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모든 사람은 대체사장과 함께 있다. 우리의 대체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지성소 안에 계시며, 우리 또한 거기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지성소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하며, 지성소에는 금항아리가 있다. 우리가 이 장소에 있고자 한다면, 반드시

시 세상과 온갖 종류의 상황을 초월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상하는 것을 초월해야 한다. 우리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즐거운 상황이든 슬픈 상황이든, 모든 상황을 초월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으면서 언약계와 금항아리를 접촉하게 된다. 우리가 감추어진 만나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 안에 있으면서 신성한 본성을 접촉해야 한다.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 것은 절대적으로 세상 밖에 있는 일이다. 세상적인 교회가 하락하여 세상과 연합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집트에서 광야로 올라가고, 광야에서 좋은 땅으로 올라가며, 좋은 땅에서 성막으로, 바깥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가야 한다. 지성소 안에 들어간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언약계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며, 금항아리를 만지고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교회가 더욱더 세상적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감추어진 만나를 먹어야 한다. 우리가 감추어진 만나를 누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친밀함 안에 거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 신성한 본성 안에는 세상적이거나 우리를 빛나가게 하는 것이 전혀 없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교통이 있다. 감추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체험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주님, 저는 세상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당신만을 주의하며, 어떤 인간관계나 친구 관계도 주의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모든 관계를 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저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제 깊은 속에서부터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를 방해하는 것이 조금도 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말할 때, 우리는 금항아리 안에, 곧 신성한 본성의 친밀함 안에 있으면서 감추어지신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기념이 됨

금항아리 안에 보존된 만나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처였던 성막의 중심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동화시킨 그리스도는 오늘날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의 일부인 우리 존재의 중심이다(딤후 4:22, 엡 2:22). 우리가 공개된 만나로서 먹은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 안으로 소화되고 동화됨으로써 감추어진 만나가 된다. 오늘날 하나님의 건축물의 초점은 그분의 백성이 먹고 소화하고 동화시킨 그리스도이다.

공개된 만나, 곧 매일 아침 지면에 내려온 만나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누림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항아리 속에 두어진 한 오멜의 만나(출 16:33)는 감추어져 있었고, 공개적으로 온 회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여호와 앞에서 항아리 안에 두어진 만나의 양은 한 오멜이었다. 이 양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거두어 먹은 만나의 양과 같았다(출 16:16-18). 영적인 체험에서 이것은 우리가 먹은 그리스도의 양이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매일 그리스도께 참여할 때 우리는 또한 그분을 간직하고 있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그리스도를 간직할 수 있느냐는 얼마만큼의 그리스도를 먹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먹을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많이 간직한다.

우리가 먹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간직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방면을 먹든지 그것은 대대로 기념이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먹고 누린 그리스도는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조성이 되어 우리를 건축되게 하고, 심지어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존재의 어느 것도, 우리의 소유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어느 것도 기념이 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 오직 우리의 조성이 되신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기념이 될 가치가 있으시다. 그 밖의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영원토록 남을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 안에 있을 때 기념할 만한 그리스도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많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 안에서 회상할 그리스도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주님께 올바르게 지속적으로 그분을 먹는다면, 우리는 영원 안에서 그분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교회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누렸던 놀라운 시간을 회상할 것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를 누렸든지, 그것은 전부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안에 간직될 것이다. 이러한 감추어진 만나

는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이다.

감추어진 만나를 먹음으로 성막 안으로 합병됨

목적은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경륜이 있으시고, 그분의 경륜의 의도는 우주적인 합병체를 갖는 것이다. ‘합병체’라는 단어는 서로 안에 거하는, 곧 상호 내재하는 인격들을 가리킨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하나님은 상호 내재하시고 하나로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합병체이시다. 삼일성의 셋은 존재에 의해서, 행함에 의해서 합병체가 되신다(요 14:10-11). 영원 과거에 삼일 하나님은 회의를 여시어(행 2:23), 삼일 하나님의 둘째 분이 사람이 되시고, 인생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셔서, 구속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모든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합병체 안으로 합병되게 하여, 확대된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가 되게 하실 것을 결정하셨다.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구속되고 거듭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확대된, 우주적인, 신성하고 인간적인 합병체가 되었고(요 14:20),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계 21:2-3). 구약에서 성막은 우주적인 합병체의 표징이며,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 것은 성막 안으로 합병되는 것이다.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는 성막의 중심이시다. 감추어진 만남은 금항아리 안에 있다. 금항아리는 금이 입혀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케 안에 있고, 이 케는 지성소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감추어진 만남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금항아리 안에 있다. 금항아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만남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케는 지성소 안에 있고, 지성소는 우리의 영이다. 오늘날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영이 지성소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께서 금항아리이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케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영이신 이 그리스도는 지성소의 실재인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사신다. 이것은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며, 그 영이신 아들은 지성소의 실재이심을 의미한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네 번의 ‘안에’와 일치한다. 20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은 “실재의 영...께서 ...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는 아들 안에 있으며, 아들은 우리 안에 계시고, 실재의 영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것이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로 된 합병체이다.

성막 안으로 합병되는 길은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우주적인 합병체이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더욱더 합병된다. 감추어진 만나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성막 안으로 합병된다. 구약에서 성막은 새 예루살렘의 예표였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불린다. 하나님의 성막인 새 예루살렘은 우주적인 합병체이다. 이 우주적인 합병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막이고, 이 성막의 중심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이다.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먹을수록 우리는 이 우주적인 합병체 안으로 더욱더 합병된다.

세상은 불 못에서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의 일부인지 하나님의 성막, 우주적인 합병체인 새 예루살렘의 일부인지 질문해 보아야 한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있는 이기는 이들에게 그들이 그분을 먹으면 우주적인 합병체, 완결된 새 예루살렘 안으로 합병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새 예루살렘 안으로 합병되어야 한다. 이 유일한 합병체 안으로 합병되는 길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이 합병체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며, 이 합병체는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몸이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신약의 결론, 영문판, 410장, 4179-4182, 4186-4187쪽)*